

로컬리더스

부안 계화면 침수피해 심각

장마철 용·배수로 갈대와 수초 무성 농경지·가옥 잠겨

〈속보〉본격적인 장마철에 용·배수로에 밀집 자생하는 갈대와 수초가 제거되지 않아 용수로의 물 흐름을 막아 인근 농경지는 물론 인근 가옥이 침수되어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본보 6월 28일자 10면)

지난 2일 집중호우로 부안군 계화면 대벌들과 양산 뜰 농경지 12ha가 침수되어 농민들이 논농사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4일 오후 6시경에도 한모씨(70·계화면 대벌마을)등 5세대의 가옥이 물난리로 큰 불편을 겪어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특히 이들 농민들은 용·배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는 농민의 애로사항은 뒷전인 채 편의주의 행정을 펼치며 예산타령만 늘어 놓고 수초 제거작업을 미루는 등 용·배수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부안군 계화면 양산들과 대벌들 일대 용·배수로가 갈대와 수초 등으로 뒤 덮인 채 방치되어 물흐름을 가로막고 있어 집중 호우 시 농경지와 가



농경지 침수 모습

옥이 침수되었다. 이에 따라 부안군 계화면 대벌리 등이 일대 농민 장 모씨(65)는 "지난해에도 수초가 제거되지 않아 장마철에 눈에 침수되어 논농사가 피해를 보았다"며 관계당국에 수차례 수초제거 작업을 장마 이전 작업과 농수로 확장을 요구했지만 제거작업이 지연 집중 호우 시 농경지는 물론 인근 주택까지 침수가 우려 밤잠을 설치며 걱정과 불안 함을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직원 한 명이 한계 면에 출장 다녀 처리하고 있지만 자기 논이 논두렁에 비닐봉지나 페트병이 구 거가 막혔으면 이것때달라 저것 때들리며 진화로 신고하고 처리가 지연되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농민들도 각성을 해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결의되어 있어 부적절한 항변에 그쳤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맛집 선정 위해

13일까지 시민 설문조사

정읍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선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대중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맛집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육성,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시작된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역과 터미널, 다중집합장소, 보건소 내소자 등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와 함께 정읍시 홈페이지 접속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기관과 단체의 업소 추천도 받고 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권 업소를 선정 후 현장심사 및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읍 맛집' 지정증과 표지판을 배부하고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영업시설 개선 자금 우선 용자, 시 홈페이지 게시, 홍보물 제작, 위생적인 상차량개선, 맛집 위상을 갖추기 위한 친절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교육

정읍시는 지난 4일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고모네장터 참여농가 및 희망농가 등 농업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용진농협 이종진사무를 초빙해 고모네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필요성과 농가 참여방법, 출하요령 등 실제 로컬푸드 납품농가들의 사례를 들어 농가들의 이해를 높였다.

현재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은 북면 화하리 69-10번지 2,492㎡부지에 건축 면적 330㎡로 사업비 3억2000만원에 국비 1억7000만원을 더해 현재 실시 설계용역중이며, 금년 말 완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산물 상품화와 마케팅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금민농협 호주에 쌀 첫 수출

김제시 금민농협은 5일 대 호주 쌀 수출을 위한 15톤(10kg 1,500포)을 금민농협 마곡 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은 금민농협 브랜드인 "황금벼리"이며 지난 4월에 1차 샘플로 보낸 김제시 쌀이 호주 바이어의 최종 선택으로 이루어진 수출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사업 가능성의 물꼬를 트는 계기이며 계약기간은 1년(매월 수출량 10kg 1,500포 ~ 2,000포), 연간 200여 톤(10kg 20,000포)의 수출물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성분검사와 검역까지 완전하게 마친 쌀은 선적 후 이달 말쯤 호주에 도착되어 초밥식당에서 우수한 미질을 뽐내며 미식가들의 입을 즐겁게 할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는 1966년 설립된 세계축제협회(IFEA)의 한국지부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수준 높은 국내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지평선축제,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 3개 부문 수상

축제기록영상, 브로셔, 스폰서기프트 부문 선정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가 지난 4일 안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10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Pinnacle Award Korea)에서 '축제기록영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명성을 어김없이 발휘하였다.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는 세계 축제발전을 위해 세계적 축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축제정보 공유 차원에서 1956년 설립된 세계축제협회(IFEA)의 한국지부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수준 높은 국내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

며 세계적인 트렌드를 접목하여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이번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축제기록영상, 브로셔 및 스폰서기프트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피너클어워드 세계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축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기틀을 탄탄히 다지게 된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농경문화를 현대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2004년부터 8년 연속 최우수축제를 거쳐 2013년부터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김제지평선축제가 나가자 하는 글로벌축제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세계축제협회(IFEA) 피너클어워드 입상은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는 이번 피너클어워드 입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축제 관련 기관인 세계축제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인한 축제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믿고 와서 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교월동, 지평선축제 준비 코스모스길 조성 '구슬땀'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기간 김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추억거리를 제공해 줄 코스모스길과 꽃동산 조성을 위한 꽃묘 식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교월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이)는 요즘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5일 40여명이 참여하여 입석사거리에서 신덕교 구간과 우뚝마을에서 신평마을에 이르는 약 10km 구간의 코스모스길에 대한 꽃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축제장 진입도로 시작점 부근에 위치한 꽃동산 조성지 약 3,000㎡에도 꽃묘 식재를 마무리하였다.

교월동에서는 이날 식재한 코스모스 꽃묘가 약 90일 후 지평선축제 기간에 맞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으로 변신,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교월동 새마을부녀회는 꽃동산 조성지 약 3,000㎡에도 꽃묘 식재를 마무리하였다.

맛있을 수 있도록 잡초제거 및 보식작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오늘 작업을 함께해준 새마을부녀회원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지평선 축제기간 만개한 코스모스 꽃길에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주민행복지원실 김미옥 어르신 복지팀장이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부안군 김미옥 팀장,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

어르신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혁신적으로 앞장서온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 김미옥 어르신 복지팀장이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지난 1993년 공직에 발을 내디딘 김미옥 팀장은 22년 동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행정을 생활화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울타리가 되어 왔다.

또 김미옥 팀장은 공직지원하기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타 기관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어르신 복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타까워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

는 등 지역사회 발전 및 어르신 복지 증진에 혁신적으로 앞장서 왔다.

김 팀장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동료 직원들 역시 열정을 갖고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송구스럽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동료 직원들은 "김미옥 팀장은 부서에서도 직원 상호간의 따뜻한 정과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직장에서나 일상에서 항상 준비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모범을 보이는 성실한 모범 공무원"이라고 칭찬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박효기 자랑스러운 복지공무원 선정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맞춤형급여 1주년 기념행사와 자랑스러운 지자체 공무원을 20명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 하였다.

이날 전라북도를 대표하여 김제시 주민복지과 박효기 팀장이 선정되었다.

박효기 팀장은 2016년 1월 통합조사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며 2015년 7월부터 추진해온 맞춤형 급여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대상자들의 발굴 및 합리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여 제도 정착과 운영 과정에 타지자체보다

김제시에서 맞춤형 급여의 제도정착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는 읍면동과 연계한 민관협력추진 사업을 통한 신규수급자 발굴 375세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통한 권리구제 82세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계획수립 및 홍보등을 실시하며 추진단을 운영하며 복지업무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둔 제도운영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박효기 팀장은 "김제시민들을 위한 복지그늘을 밝히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지제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박 품평회를 14일부터 15일까지 연지동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

14~15일 개최... 당도·식감·무게·모양 등 기준

정읍의 대표적인 명품농산물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을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정읍시수박연구회(회장 이석번)는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의 본격 출하시기를 맞아 제13회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를 14일부터 15일까지 연지동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올해로 13회째가 되는 수박품평회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축제로 농촌진흥청이 공인한 수박명인 이석번 회장과 정읍수박연구회

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을 엿볼 수 있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읍 최고의 씨 없는 수박을 선발하는 수박품평회가 열려 당도와 식감, 무게, 모양 등을 기준으로 대상, 금상, 동상 등을 가린다. 또 전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의 협조를 받아 30여점의 세계수박 유전자원도 전시하고, 수박조각 작품, 난타공연, 밸리댄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특가 판매와 정읍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도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